

모의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열)

[논술고사 시간 : 3시간]

【수험생 유의사항】

1. 답안 작성 시 제목은 달지 말 것.
2. 수험 번호, 성명 등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말 것.
3.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을 사용할 것. (연필은 사용 불가)
4.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함.
5. 각 문항의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 0점 처리함.



◆ 제시문 ◆

(가)

<참고 사항> ‘나’는 자신의 지난 행적을 반성해 오다가 P사에서의 일 때문에 보름 동안 ‘울분’과 ‘불쾌감’에 휩싸여 병 아닌 병을 앓았다고 밝히고서는, P사에서 있었던 ‘윤’과의 일을 떠올린다. ‘나’는 ‘윤’과 교섭이 있었던 사이는 아니었다.

윤은 그러나 일체로 붓을 멈추고 신문사원의 직업도 버리고 함으로써 대일협력의 조그마한 귀퉁이에도 참여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니한 것이 분명하였다. 이렇게 대일협력을 하지 아니한, 그래서 지조가 깨끗한 윤에 대하여 많으나 적으나 대일협력을 한 것이 있음으로 해서 민족반역자 혹은 친일파의 대열에 들어야 할 민족의 죄인인 나는 그에게 스스로 한 팔이 꺾이지 아니할 수가 없고 따라서 그가 어려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던 것이었었다. 동시에 죄 지은 사람의 약한 마음이라고 할까 섬뚱 그를 만나자니 눈치가 먼저 보여지지 아니할 수가 또한 없던 것이었었다.

과연 내가,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에, 같은 말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대답하는 윤의 말 억양과 표정에는 역력히 경멸하는 빛이 머금어 있었다.

한참을 있다 윤이 뒤척이던 신문축을 내려놓으면서 생각잖이 붙일성 있게,

“오래간만입니다.”

하여, 나도 달가이,

“퍽 오래간만입니다.”

하였다.

미상불 우리는 퍽 오래간만이였다. 일중전쟁이 일던 그 이듬해 윤은 문필행동을 정지하고 신문기자의 직업을 버리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 거리에서 자취마저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에 근 십 년 만에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였다.

윤이 그러나 인사상으로만 오래간만이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닌 것은 그 다음 수작으로써 바로 드러났다.

“시골루 소개(疏開)* 가셨드라우.”

“네.”

“호박이랑 옥수수랑 많이 수확하셨습니까?”

그의 독특한 시니컬한 입초리로 빙긋 웃기까지 하면서 하는 아주 노골한 경멸과 조롱이였다. 생각하면 윤으로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멸과 조롱이였다.

지나간(1945년) 사월에 나는 소개를 하여 고향으로 내려갔었다.

표면의 이유는 지방으로 소개를 하여 스스로 폭격을 피하며 그리함으로써 소위 국토방위에 소극적 협력을 하기 위한 이른바 당국의 방침에의 순응이었지만 실상은 구실이요 소개를 빙자코 도피행을 한 것이었었다.

(중략)

일본이 패전을 하는 그날 그 순간부터 치안과 질서가 무능한 것이 뒀을 따라 칼 찬 순사와 기관총 가진 패잔 일병과 주먹심 있는 평민과가 강도와 폭도질을 함부로 하고 일변 필연적인 사태로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대규모의 기근이 오고 하여 거리는 삼시간에 살육과 약탈, 능욕과 방화, 질병과 기아의 구렁으로 변하고 그 죽음과 공포의 거리에서 아무 구원의 능력도 주변도 없는 약비한 아비를 그래도 아비라고 떨면서 울고 매어달리는 나의 어린것들을 데리고 서서 속절없이 죽음을 기다리거나 할 따름일 나 자신의 그림자를 환상할 적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함을 금치 못하였다.

대처(도시)가 그러한 데 비하여 고향은 차라리 안전하였다. 우선 당장은 각다분하겠지만 일을 당한 마당에서는 역시 고향이 나을 터이었다.

누대 살아온 고향이요, 일가 친척이 여러 집이 있어 생소하지가 않았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 되어 난세를 당하여 제일 두려운 ‘사람’, 그 ‘사람’을 두려워 아니 하겠으니 좋았다.

박토나마 조금은 있으니 하다못해 감자포기를 심어 먹어도 주려 죽기는 면할 수가 있으니 더욱 안심이었다.

나는 드디어 고향으로 내려갈 결심을 하였다.

나는 나만 그럴 뿐이 아니라 몇몇 친지들더러도 그런 소견과 실태정을 말하면서 반드시 서울에 머물러 있어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바엔 각기 고향으로 내려가기를 권하기까지 하였었다.

민족해방의 돌발적인 변화를 겪고 난 지금에 이르러 지금의 심경을 가지고 그때 당시의 나의 그러던 심경이나 행동을 곰곰이 객관을 하자면 지배자의 압력이 약하여진 그 계제에 떨치고 일어나 해방의 투쟁을 피할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서 오직 저 일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까지밖에는 궁리가 뚫리지 못한 것은 적실히 나의 약하고 용렬한 사람 됨됨이의 시킴이었음엔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나 혼자만이 유독 그렇게 약하고 용렬하였는지 혹은 대체가 개인적이며 소극적이며 퇴행적이기가 쉬운 망국민족의 본성의 소치였는지 그 분간은 막시 모르되 하여간에 이처럼 약하고 용렬하였던 것이 사실이요 겹하여 무가내한 노릇이었었다. 그렇다고 시방은 제법 굳세고 용맹스러워졌다는 자랑이나 하면 물론 아니었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약하고 용렬한 지아비였다.

* 소개(疏開) : 공습이나 화재 따위에 대비하여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주민이나 시설물을 분산함.

(나)

2001년 지미 웨일스(Jimmy Wales)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백과사전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 새로운 방식이란 특정 사실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식을 모으는 것이었다. 즉, 백과사전 작업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집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위해 웹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키(Wiki)라는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키피디아(Wikipedia) 사이트에서 자신의 지식을 올리거나 기존의 내용을 편집·첨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계획을 회의적인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는 백과사전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오랜 옛날부터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을 수집하는 일은 오로지 소수의 뛰어난 학자들의 몫이기도 하였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혼자서 당대의 모든 지식을 기록하였다. 400년 뒤 로마에서도 대 플리니우스가 당대의 지식을 모아 37권의 책을 편찬하였고, 9세기에 중국의 학자 투위도 그만의 백과사전을 집필했다. 또 1700년대에는 디드로, 볼테르, 루소와 몇몇 친구들이 29년에 걸쳐 백과사전 *Encyclo*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한편, 백과사전을 편찬하는 일은 산업혁명 이후에는 팀 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8세기 후반 스코틀랜드 계몽학과에서 소수의 전문가들이 백과사전 편찬 작업을 치밀한 작업계획과 관리자의 감독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16,000쪽이 넘는 분량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 탄생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과사전을 편찬하는 일은 여전히 소수의 뛰어난 학자들의 몫이었다.

새로운 방식의 백과사전을 만들려는 지미 웨일스의 계획은 2001년 당시에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인터넷 보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그 참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현재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사전의 집필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전이 제공하는 항목 수도 무려 350만 개에 달한다. 그 결과, 현재 위키피디아 사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참고가 되는 백과사전이 되었다.

(다)

아마도 보편적 ‘ 좋음 ’을 검토하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탐구는 ‘ 좋음 ’의 이데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벗들이기에 달갑지는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진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친구보다도 진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 좋음 ’은 존재가 이야기되는 방식만큼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된다. 그것은 신과 이성(理性)이 좋다고 이야기될 때처럼 실체에 적용되기도 하고, 탁월성이 좋다고 이야기될 때처럼 성질에 적용되기도 한다. 또 그것은 적당량이 좋다고 말할 때처럼 양에도, 어떤 것에 유용하다고 말할 때처럼 관계에도, 적시(適時)나 적절한 거처를 이야기할 때처럼 시간이나 장소에도 적용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 좋음 ’이 어떤 공통적이며 단일한 보편자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만약 그러한 보편자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 좋음 ’은 모든 범주들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범주에서만 이야기되어야 했을 테니까 말이다. 또 하나의 이데아에 따르는 것들에 대한 학문은 하나만 존재하므로 이 모든 ‘ 좋음 ’들에 대한 학문 역시 하나만 존재해야 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의 범주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조차도 여러 학문들이 존재한다. 적시의 경우를 예로 하여 보면, 전쟁에 있어서 적시를 다루는 것은 병법이며, 질병에 있어서 적시를 다루는 것은 의술이다.

하지만 우리의 벗들은 모든 종류의 ‘ 좋음 ’들을 단일한 이데아를 따르는 것으로 이야기하며, 모든 종류의 ‘ 좋음 ’들에 있어서 ‘ 좋음 ’에 대한 설명이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 하양 ’에 대한 설명이 눈[雪]과 백연(白鉛)에 있어서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에 의해 획득되고 성취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위해서는 ‘ 좋음 ’ 자체를 아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 좋음 ’ 자체를 본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더 잘 알 수 있고 또 그런 만큼 그것들을 실제로 성취할 수도 있을 것이기에 말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어느 정도 수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관행과는 맞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직조 전문가나 목수가 이 ‘ 좋음 ’ 자체를 앎으로써 자신의 기술과 관련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또한 ‘ 좋음 ’의 이데아 자체를 봤다고 해서 의술에 더 능숙해지거나 병법에 더 익숙해질 것 같지도 않다. 의사는 분명 이런 식으로 건강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 그것도 개별적인 인간의 건강을 돌보는 것일 터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기로 하자.

(라)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는 효율적 마케팅이다. 즉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단골 마케팅은 바로 이러한 마케팅의 일환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제조 기업의 경우에 그 매출액의 대다수는 20%의 단골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단골이 아닌 고객을 잘 설득하여 한 단위의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단골 고객의 경우보다는 많게는 30배, 적게는 5배 정도 더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효율적 마케팅을 위해 단골 고객의 관리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테면 단골을 위한 사은품 증정, 특별 할인 쿠폰 증정, 신상품 안내 메일 발송, 행사 초대권 발송 등이 그것이다.

의견 선도자(opinion leader) 마케팅도 마찬가지다. ‘ 의견 선도자 ’란 다른 사람의 의견, 사고,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한 예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 집단은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일반 사람들의 의견, 사고,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 의견 선도자 ’라는 개념은 상품 구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상류층이 일반인들의 구매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그 좋은 예이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마트에서 상품 값을 계산하려고 S지

갑에서 돈을 꺼내는 모습이 TV 화면에 비춰진 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 S브랜드가 일반 소매점에서 하루 만에 다 팔렸다고 한다. 상류층뿐만 아니라 인기 연예인, 유명 스포츠 스타 또한 또 다른 유형의 의견 선도자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층의 우상이 되는 아이돌이나 김연아 선수와 같은 스포츠 스타가 특정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한다면, 많은 일반인들이 그들을 모방하여 구매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효율적 마케팅을 위해 무료 제품 협찬, 고액의 광고 모델료 지불 등과 같은 방식으로 이들 잠재적 의견 선도자들을 특별 관리하게 된다.

효율적 마케팅은 고객 관점뿐만 아니라 브랜드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많은 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대부분을 소수의 특정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라면을 제조하는 N사의 S라면이나, 제약회사인 D사의 피로 회복 음료인 B브랜드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효율적 마케팅을 위해 일반 브랜드들보다는 이러한 스타 브랜드의 이미지 유지 및 관리에 더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마)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하늘이 온 백성을 내시고 사물에 대해서 법도가 있도록 하였으며, 백성들은 변하지 않는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공자(孔子)는 말하기를, ‘이 시를 지은 사람은 그야말로 도를 아는구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법칙이 따르게 마련이니 백성들은 변하지 않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는 것이다.

맹자(孟子)가 말씀하였다.

“풍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순해지고 흉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나워지는데, 이것은 하늘이 재질을 부여한 것이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빠뜨린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보리와 밀의 종자를 뿌리고 김을 매는데, 그 지질이 같고 심은 때가 또 같으면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지(夏至) 때에 이르러 모두 여물어진다. 비록 결과가 같지 않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땅에 비옥함과 척박함이 있고 비와 이슬의 보살핌과 사람의 돌봄에 균일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로 대개 부류가 같은 것은 모두 서로 동일한 법이니, 어찌 단지 사람의 경우에 한해서만 그것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성인도 나와 동류인 자이다. 그런 까닭에 용자(龍子)가 말하기를, 발의 크기를 알지 못하고 신을 만들더라도 나는 그것이 삼태기같이 되지 않을 것을 아노라 하였는데, 신발이 서로 비슷한 것은 천하 사람의 발이 모두 같기 때문이다. 사람의 입은 맛에 있어서 공유하는 바가 있다. 역아(易牙)는 먼저 내 입이 즐겨하는 바를 터득한 자이다. 만일 사람의 입이 맛에 있어서, 그 개성이 남과 다르기가 개와 말이 나와 부류를 달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하의 맛 즐기는 것이 어찌 모두 역아의 미각에 따를 수 있겠는가. 미각에 이르러서는 천하가 역아를 기준으로 하니, 이것은 천하 사람의 구미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니라. 귀도 또한 그러한 것으로 소리에 이르러서는 천하 사람이 모두 사광(師曠)에게 기준을 삼으니, 이것은 천하 사람의 귀가 서로 다 비슷하기 때문이니라. 뿐만 아니라 눈도 또한 그러한데, 자도(子都)에 이르러서는 천하 사람들 중에 그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으니, 자도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은 정상적인 시각을 갖지 못한 사람이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사람의 입은 맛에 있어서 공통된 기호를 갖고 있으며, 귀는 소리에 있어서 공통된 청각을 갖고 있으며, 눈은 색상에 있어서 공통된 미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에 이르러서 왜 공통되는 바가 없겠는가? 마음의 공통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도리와 의리이니, 성인(聖人)은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공통되는 바를 체득한 분이다. 그러므로 도리와 의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고기가 우리들의 입을 만족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니라.”

(바)

<도표 1> 스웨덴, 미국,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소득 구성 비율 및 노인 빈곤율 (%)

	노인 가구의 소득 구성 비율						노인 빈곤율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사적연금	기타	
스웨덴	6.6	2.2	79.3	0.2	8.0	0.0	6.6
미국	10.9	7.8	49.6	0.8	20.1	2.6	24.6
한국	23.6	4.1	13.9	28.2	0.3	0.5	48.3

<도표 2> 한국 노인의 국민연금 비수급/수급 가구별 소득 불평등 비교 (%)

소득 종류(2005년)		국민연금 비수급 가구	국민연금 수급 가구
지 니 계 수	일차소득 (근로소득 + 자산소득)	19.3	33.8
	시장소득 (일차소득 + 사적 이전소득)	28.9	29.0
	경상소득 (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28.6	26.3
	총소득	28.2	26.0

- * 지니계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치가 클수록 가구 간 소득 편차가 큼을 나타냄.
- * 사적 이전소득: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소득, 예를 들어 노인이 성인자녀로부터 받는 돈.
- * 공적 이전소득: 국가로부터 얻는 소득, 예를 들어 공적 연금이나 공적 부조 급여 등.

◆ 문항 ◆

【문항 1】

(가)의 내용을 250자 정도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것을 (나)~(마)에서 모두 찾아 (가)와의 차이점을 각각 밝히시오. (총 600자 내외, 배점 30점)

【문항 2】

(바)의 <도표 1>과 <도표 2>를 보고,

- 1) 노인의 소득 구성과 노인 빈곤의 관계, 소득 종류와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 2) 1)을 바탕으로 하여,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총 500자 내외, 배점 20점)

【문항 3】

최근에 들어서 ‘노령기초연금’의 시행 방식을 두고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어떤 이들은 노령기초연금을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을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에 제시된 글에서의 주장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한 뒤, (가)~(마)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 (단, 자신이 정한 입장의 논거들을 제시하거나 반대편 논거들을 비판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마)의 주된 내용을 활용할 것.) (1,200자 내외, 배점 50점)

I. 각 지문의 출처와 내용소개

(가)

(가)는 채만식의 소설 『민족의 죄인』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민족의 죄인』은 1948년 『백민』에 발표되었던 것으로, 채만식이 일제 말 자신의 친일 행적을 다룬 자전적 성격의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채만식은 그가 친일 행위를 하게 된 과정과 배경을 설파하였는데, 그것은 친일 행위를 하게 된 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그 결과만 앞세워 개인을 단죄하려는 당시의 경향에 대한 간접적인 항변을 포함한 것이었다. (가)는 그런 항변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들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한 마디로 어떤 개인의 행위를 친일 행위로 단죄하기 이전에 먼저 그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나)

(나)는 크리스 앤더슨이 저술한 『롱테일 경제학』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발췌한 것이다. 『롱테일 경제학』은 주로 ‘롱테일 법칙’을 다루고 있는데, ‘롱테일 법칙’이란 핵심적인 소수(특수)보다 평범한 다수(보편)가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론이다. (나)는 크리스 앤더슨이 롱테일 법칙을 옹호하기 위해 실례로 든 내용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뛰어난 소수(특수)가 참여하여 만든 기존의 백과사전보다 수 만 명에 달하는 일반인 다수(보편)가 참여하여 만든 위키백과사전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널리 참고가 되는 백과사전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평범한 다수(보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

(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중 일부를 발췌하여 편집한 것으로, ‘좋은’은 보편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는 먼저 ‘좋은’은 서로 다른 범주들에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좋은’이 보편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그런 다음에 (다)는 ‘좋은’이 보편적이라면 이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 역시 하나여야 할 것인 바, 사례들을 통해 단일한 범주에 대해서조차도 하나 이상의 학문이 존재하는 것임을 내세워 ‘좋은’이 보편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끝으로 (다)는 보편적 ‘좋은’을 이해하면 우리에게 이로운 것들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그러한 이해가 특정한 기술을 잘 해내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알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개별성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다.

(라)

(라)는 모웬과 마이너가 저술한 『소비자 행동론』의 내용 중 일부를 한국적 상황과 결부시켜 편집한 글이다. (라)는 주로 기업의 입장에서 마케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다수(보편)보다도 특수한 소수(특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즉 소수의 단골 고객, 소수의 의견 선도자, 소수의 스타 브랜드에 집중하는 것이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마)

(마)는 『맹자(孟子)』의 <고자장구상(告子章句上)>의 일부분이다. (마)는 인간의 본질은 성(性)이며, 그 속성은 마음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인의예지임을 밝히는 글에 뒤이은 내용으로, 앞서 제시된 시각을 바탕

으로 인간에게 보편적 본성이 공유된다는 점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곧 미각, 시각, 청각 등 인간들의 기호를 예로 들어 각자의 개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각들에서는 보편적 기준이 공유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바)

<도표 1>은 스웨덴, 미국,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소득 구성 및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고, <도표 2>는 한국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비수급 가구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도표 1>에서 ‘노인 빈곤율’은 한국이 가장 높고, 미국과 스웨덴이 그 뒤를 따른다. 이런 순위는 각 나라의 소득 구성에서 근로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등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관된다. 즉 소득 구성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근로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노인 빈곤율은 낮아진다. 세 나라 중에서 한국은 특히 노인 가구의 소득 구성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근로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도표 2>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이 노인 가구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이는 소득 종류에 따른 소득 불평등도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차소득의 불평등도(지니계수)에서는 국민연금 비수급 가구의 경우가 국민연금 수급 가구의 경우보다 더 낮다. 그러나 시장소득(사적 이전소득을 포함한)에서는 국민연금 비수급 가구의 불평등도가 크게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가구의 그것은 낮아진다. 한편, 시장소득의 경우에 비해 경상소득(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비수급 가구의 불평등도는 아주 미미하게 낮아지지만, 국민연금 수급 가구의 불평등도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낮아진다. 이런 현상은 국민연금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지님을 보여 준다.

II. 문항 안내

【문항 1】

(가)의 내용을 250자 정도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것을 (나)~(마)에서 모두 찾아 (가)와의 차이점을 각각 밝히시오. (총 600자 내외, 배점 30점)

○ 문항 취지

이 문항은 제시된 지문에 대한 요약 능력, 제시된 지문들의 견해나 관점의 차이를 파악하여 서술하는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문항 설명

1. (가)의 내용 요약

(가)는 일제강점기에서의 친일적 행위가 무조건적으로 한 개인에 대한 단죄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는 ‘윤’에 대한 ‘나’의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나’는 일제시대 때에 시골로 ‘소개’를 간 일과 관련해 스스로를 ‘민족의 죄인’으로 생각하여 왔던 자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친일파로 단죄

하려는 ‘윤’의 오만한 태도를 대하고 난 이후로는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지니게 된다. 그는 그가 처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음을 내세워, 결과만을 놓고서 자신을 친일파로 규정지으려는 태도에 항변하고자 한다.

2.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은 (나)와 (마)이다. (가)는 한 개인이 일제시대에 했던 친일적 행위가 실은 개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친일 행위에 대한 일반적 태도 또는 시선이 결과에 준하는 보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에 제시문 (나)와 (마)는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2-1. 제시문 (나)의 논거

제시문 (나)는 기존의 백과사전과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의 예를 통해 핵심 소수(특수) 보다 평범한 다수(보편)가 더 뛰어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시문 (가)와 (나)는 관점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2-2. 제시문 (마)의 논거

제시문 (마)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는 일정한 법칙이나 보편적 본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곧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법칙이 따르게 마련이니 백성들은 변하지 않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처했던 개별적 사정에 대해 해명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제시문 (가)의 맥락과는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문항 2】

(바)의 <도표 1>과 <도표 2>를 보고,

- 1) 노인의 소득 구성과 노인 빈곤의 관계, 소득 종류와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 2) 1)을 바탕으로 하여,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총 500자 내외, 배점 20점)

○ **문항 취지:** 이 문항은 도표들을 구체적 상황에 맞게 기술하여 적절한 의미를 종합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해석된 사회문제에 대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문항 설명

(1) [도표 1]은 스웨덴, 미국, 한국의 노인 소득 구성(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사적 연금 소득 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함께 노인 빈곤율을 비교해서 나타내고 있다. (1)번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 소득의 구성과 노인 빈곤율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기술해야 한다. 즉 노인 빈곤율의 순위는 근로소득, 공적 이전 소득, 사적 이전 소득의 순위와 상관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공적 이전 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근로소득과 사적 이전 소득이 적을수록, 노인 빈곤율은 낮아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공적이전 소득이 노인 빈곤율을 줄이는 주요 요인이라

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소득 종류와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도표 2]에서 우선 국민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집단에서 일차소득으로부터 시장 소득으로, 또한 경상소득으로 바뀔 때에 그 불평등도(지니계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주목하여 그 두 집단을 비교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비수급 가구는 불평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수급자 가구는 불평등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즉 국민연금 비수급 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하면 불평등도는 매우 높아져서 수급가구와 비슷한 수준이 되고,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면 불평등도가 약간 개선되지만 그 차이는 미미한 정도임을 발견하게 된다. 반면 연금수급 가구의 일차소득 불평등도는 비수급 가구보다 높지만 시장소득 및 경상소득 부분에서는 점차 낮아져서, 불평등도가 상당히 개선된다.

(2)번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는 [도표 1]과 [도표 2]를 종합적으로 추론해야 한다. 우선 [도표 1]은, 한국의 경우 스웨덴이나 미국에 비해 노인 가구 소득의 구성에서 특히 공적 이전 소득이 매우 낮고 근로소득과 사적 이전 소득은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의 원인 혹은 그에 대한 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즉 공적 연금이나 사회보장급여 등 공적 이전 소득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노인 빈곤율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도표 2]는, 공적이전소득의 소득분배 효과를 보여준다. 즉 한국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의 소득분배에 대한 효과가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보다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의 노인 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적이전소득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는 스웨덴, 미국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한국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율은 3-6배가 적고 사적이전소득의 비율은 30-100배 이상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사적이전소득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기도 하지만(연금수급가구의 경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기도 한다는 점에서(연금비수급가구의 경우) 소득불평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해 내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인가구의 생계에 국민 연금이나 노령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의 역할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노인빈곤 완화와 예방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서술하여야 한다.

다음은 예시 답안이다.

(1) <도표 1>에 나타난 국가별 비교를 보면 공적 이전 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근로소득과 사적 이전 소득이 적을수록 노인 빈곤율이 낮아진다. <도표 2>에 나타난 한국 노인의 경우 연금 비수급 가구의 경우 사적 이전 소득을 포함하면 불평등도가 매우 높아지고 공적 이전 소득을 포함하면 불평등도가 매우 미미하게 변하는 반면 연금수급 가구의 경우 높았던 불평등도가 상당히 개선된다. 즉 사적 이전 소득은 경우에 따라 소득분배를 개선하거나 악화시키지만 공적 이전 소득은 노인 빈곤율을 낮출 뿐 아니라 소득 분배의 불평등 완화에도 순기능을 한다.

(2) 다른 나라에 비해 공적 이전 소득이 낮은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이 높다는 점과 소득불평등에 사적 이전 소득이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노인 빈곤율과 소득분배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 제도의 확충 등을 통한 공적 이전 소득의 비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소득이 높은 노인 빈곤율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도표 1]을 감안하면, 공적 연금이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못 벗어나는 근로빈곤 노인층을 더욱 효과적으로 돕는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높이는 데 국가가 적

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문항 3】

최근에 들어서 ‘노령기초연금’의 시행 방식을 두고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어떤 이들은 노령기초연금을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을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에 제시된 글에서의 주장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한 뒤, (가)~(마)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 (단, 자신이 정한 입장의 논거들을 제시하거나 반대편 논거들을 비판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마)의 주된 내용을 활용할 것.) (1,200자 내외, 배점 50점)

○ 문항 취지: 이 문항은 현실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로 다른 입장에 전제되어 있는 입각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정한 뒤 제시된 지문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문항 설명

제시문 (가) - (마) 중 (나)와 (마)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논거로 하고 있다. 반면 (가)와 (다) 그리고 (라)는 특수성과 개별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노령기초연금을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경우는 제시문 (나)와 (마)에 나타난 논거에 의거하여 제시문 (가), (다), (라)의 주요내용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여야 한다. 반면 노령기초연금을 노인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경우는 거꾸로 제시문 (나)와 (마)의 주요내용을 비판하면서 제시문 (가), (다), (라)의 논거에 의거하여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여야 한다.

2. 지문의 논거 활용

노령기초연금을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할 경우 :

(가) 제시문 비판 논거

(가)에서 ‘나’는 일제시대 때에 시골로 ‘소개’를 간 일과 관련해 스스로를 ‘민족의 죄인’으로 생각하여 왔지만, 자신을 친일파로 단죄하려는 ‘윤’의 오만한 태도를 마주한 뒤, 자신이 처한 특수한 사정에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음을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정치적 상황에서 친일행위는 그 피해가 대다수에게 과급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들어 친일적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를 상기 제시문에 적용한다면, 각자가 자신의 처지를 내세우며 선별적 적용을 요구하였을 때, 개개인의 갖은 요구들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복지 예산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로 인해 온갖 불만이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제시문: 보편적 적용에 대한 찬성 논거로 활용

(나)는 백과사전을 제작하는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고 있다. (나)에 따르면 선별적 참여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만든 기존의 백과사전보다 보편적 참여 방식으로 제작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널리 참고가 되는 백과사전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평범한 다수(보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노령기초연금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열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유추하여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제시문 비판논거

(다)는 ‘좋은’이 보편적이라는 주장에 반대하여, ‘좋은’은 서로 다른 범주들에 적용된다는 점과 단일한 범주에 대해서조차 하나 이상의 학문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는 보편적 ‘좋은’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들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대신 개별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좋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의 주장에 대해, 이 주장으로부터 다른 범주의 것들과 구분되는 ‘인간’ 혹은 ‘노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좋은’이 없다고 봐야만 할 이유는 없으며, 그렇다면 모든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라) 제시문 비판 논거

최대의 이윤을 위해 특정 소수를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기업 경영적인 논리이다. 즉 기업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소의 비용을 통해 최대의 이윤을 거두고자 하는 것이므로 효율성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소한 다수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특별한 소수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복지 영역은 기업 경영의 영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시 말해 사회 복지는 기업 경영처럼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국 기업 경영의 영리 관점 논리를 확일적으로 사회 복지와 같은 비영리 영역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마) 제시문 : 보편적 적용에 대한 찬성 논거로 활용

(마)는 인간에게는 보편적 본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개개인의 기호에서 유사한 특성들이 찾아진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마)는 보편성을 옹호하는 주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상기 주장을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우선 모든 노인들은 노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역시나 동일한 존재 원리를 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재적 조건이 어떠한지, 각자가 바라는 기호에 있어서는 보편성이 존재하는 바, 차등적 지원은 이러한 보편적 본성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각자가 처한 개별적 조건 이전에 인간이 가진 보편적 본성에 입각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는 것이 노인 복지의 궁극적 해결 방안이 되어야 한다.

노령기초연금을 노인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할 경우 :

(가) 제시문 : 선별적 적용에 대한 찬성 논거로 활용

(가)는 일제강점기에서의 친일적 행위가 무조건적으로 한 개인에 대한 단죄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는 ‘윤’에 대한 ‘나’의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나’는 일제시대 때에 시골로 ‘소개’를 간 일과 관련해 스스로를 ‘민족의 죄인’으로 생각하여 왔던 자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친일파로 단죄하려는 ‘윤’의 오만한 태도를 마주하고 난 이후로는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지니게 된다. 그는 그가 처한 사정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음을 내세워, 결과만을 놓고서 자신을 친일파로 규정지으려는 태도에 항변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볼 때, 이 주장은 주어진 정책을 보편적이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각 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옹호하는 입장과 상통하는 입각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제시문 비판 논거

(나)는 백과사전을 제작하는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면서, 선별적 참여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만든 기존의 백과사전보다 보편적 참여 방식으로 제작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널리 참고가 되는 백과사전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백과사전 편찬에 대한 (나)의 내용이 보편성을 지지하는 관점으로만 여겨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대적 특수성을 무시한 비교가 정당한지, 백과사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접근의 편리성이 목적 성취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게다가 ‘보편적’ 편찬 방식의 경우에도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특수한 실정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무시될 수는 없으며, 이런 점에서 노령기초연금 역시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제시문 : 선별적 적용에 대한 찬성 논거로 활용

(다)는 ‘좋은’이 보편적이라는 주장에 반대하여, ‘좋은’은 서로 다른 범주들에 적용된다는 점과 단일한 범주에 대해서조차 하나 이상의 학문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는 보편적 ‘좋은’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들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대신 개별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는 위 주장을 옹호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다)에 나타난 주장은 모든 노인 계층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좋은’이란 존재하지 않고 대신 각 계층에 적용되는 ‘좋은’의 기준이 다르다는 주장을 지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단일한 ‘좋은’을 고려하는 것이 각 계층에게 이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 계층에게 ‘좋은’ 것이 다른 계층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 계층에 맞게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라) 제시문 : 선별적 적용에 대한 찬성 논거로 활용

(라)는 사람 혹은 특정 대상이 모두 똑같을 수 없으므로 사람 혹은 특정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대

우해야 한다는 논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큰 틀은 사회 복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 간 경제적 차이를 인정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적은 수준의 경제적 보조는 아무런 효용을 창출해내지 못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경제적 보조의 절대적 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높은 효용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할당될 경제적 보조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할당한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효용은 보다 커질 것이다. 이는 곧 사회 전체적인 효용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결국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모든 노인들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 제시문 비판 논거

인간에게 보편적 본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보편적 복지의 타당성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가진 노인 복지 예산 규모가 무한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어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보편적 본성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또한 각자가 처한 물질적 조건의 상이함은 때에 따라 역으로 인간의 본성을 가릴 수도 있다. 따라서 보편적 본성의 균형을 위해 경제적 조건 등 외재 조건의 불균형을 해소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선별적 복지가 요구될 수 있다.

4. 문항별 평가 기준 및 점수 부여

【공통으로 유의할 사항】

- 각 문항의 만점을 100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각 문항에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문항 1)

(가)의 내용을 250자 정도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것을 (나)~(마)에서 모두 찾아 (가)와의 차이점을 각각 밝히시오. (총 600자 내외, 배점 30점)

【유의 사항】

- 글자 수가 400자 미만 또는 800자 초과일 경우에는 0점 처리를 한다.
- 100점 중 요약에 30점을,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을 찾은 것에 10점, 관점이 다른 제시문의 논거요약과 차이점을 밝힌 것에 60점을 배정한다.

1) 제시문 (가) 요약 : 30점

30점 - 21점 : 논리적으로 주어진 조건에 맞게 요약

20점 - 11점 : 주어진 조건에 맞게 요약

10점 - 0점 :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거나 요약 내용이 불충분함

2)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 찾기 : 10점

10점 : (나)와 (마) 모두 찾은 경우 :10점

5점 : 하나만 찾은 경우

0점 : 둘 다 못 찾은 경우

3)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 논거요약 및 차이점 : 60점

60점 - 51점 : (나)와 (마)의 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제시문 (가)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기술

50점 - 41점 : (나)와 (마)의 논거를 제시하고, 제시문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

40점 - 31점 : (나)와 (마)의 논거 중 하나를 불충분하게 제시하거나, 제시문 (가)와 차이점을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30점 - 21점 : (나)와 (마)의 논거를 모두 불충분하게 제시하였으나, 제시문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또는 (나)와 (마)의 논거 중 하나를 불충분하게 제시하고, 제시문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20점 - 11점 : (나)와 (마)의 논거를 모두 불충분하게 제시하고, 제시문 (가)와의 차이점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10점 - 0점 : (나)와 (마)의 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문 (가)와의 차이점도 전혀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문항 2】

(바)의 <도표 1>과 <도표 2>를 보고,

1) 노인의 소득 구성과 노인 빈곤의 관계, 소득 종류와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2) 1)을 바탕으로 하여,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총 500자 내외, 배점 20점)

【유의 사항】

○ 글자 수가 300자 미만 또는 700자 초과일 경우에는 0점 처리를 한다.

○ 전체 100점 중에 (1)의 기술에 60점, (2)의 기술에 40점을 배정한다.

1) : 60점 만점

ㄱ) <도표 1>을 적절히 설명, ㄴ) <도표 2>를 적절히 설명, ㄷ) 각 도표의 수치를 일치되게 서술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 소득의 역할과 영향에 관하여 해설과 예시문에 제시된 바와 상응하는 정확한 기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0점 - 51점 :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조건에 맞게 완벽하게 기술

50점 - 41점 :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조건에 맞게 기술

40점 - 31점 :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기술

60점 - 21점 : ㄱ)과 ㄴ)의 요건을 제시했으나, 공적, 사적 이전소득에 대한 기술에서 상응하는 정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20점 - 11점 : ㄱ)과 ㄴ) 중에서 한 요건만 제시하였고, 공적, 사적 이전소득에 대한 기술에서 상응하는 정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10점 - 0점 :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2) : 40점 만점

ㄱ) <도표 1>의 적절한 해석으로부터 합당한 방안 도출, ㄴ) <도표 2>의 적절한 해석으로부터 합당한 방안 도출, ㄷ) 두 도표를 종합하여 적절한 해석을 통해 합당한 방안을 도출하여 해결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40점 - 31점 :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완전하게 해결방안을 기술

30점 - 21점 : 세 요건 중 두 가지만 조건에 맞게 해결방안을 기술

20점 - 11점 : 세 요건 중 하나만 조건에 맞게 해결방안을 기술

10점 - 0점 :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항3)

최근에 들어서 ‘노령기초연금’의 시행 방식을 두고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어떤 이들은 노령기초연금을 모은 노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을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에 제시된 글에서의 주장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한 뒤, (가)~(마)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 (단, 자신이 정한 입장의 논거들을 제시하거나 반대편 논거들을 비판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마)의 주된 내용을 활용할 것.) (1,200자 내외, 배점 50점)

【유의 사항】

○ 글자 수가 1000자 미만 또는 1,400자 초과일 경우에는 0점 처리를 한다.

○ 전체 100점 중에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이 정한 입장의 논거를 밝힌 것에 30점을, 반대편 논거를 담은 제시문의 주요내용을 비판한 것에 50점을 그리고 표현력을 포함하여 글의 논리적 구성력에 20점을 배정한다.

1) 자신이 정한 주장의 논거 : 30점

30점 - 21점 : 자신이 정한 입장을 제시문의 논거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제시

20점 - 11점 : 자신이 정한 입장을 제시문의 논거를 활용하여 제시

10점 - 0점 : 자신이 정한 입장을 관련된 모든 제시문의 논거에 의거하여 논의하지 않거나, 제시문과 무관한 논거에 의하여 제시

2) 반대편 논거를 담은 제시문의 주요내용 비판 : 50점

50점 - 41점 : 자신이 정한 입장과 반대편 논거를 담은 제시문의 주요내용을 자신의 주장과 관련지어 적절하게 비판하였다.

40점 - 31점 : 자신이 정한 입장과 반대편 논거를 담은 제시문의 주요내용을 자신의 주장과 관련지어 비판하였다.

30점 - 21점 : 자신이 정한 입장과 반대편 논거를 담은 제시문의 주요내용을 자신의 주장과 관련짓지 않고 비판하였거나, 또는 둘 중 한 제시문의 주요내용을 자신의 주장과 관련지어 비판하였다.

20점 - 11점 : 자신이 정한 입장과 반대편 논거를 담은 제시문의 내용에 의거하지 않고 적절하게 비판하였다.

10점 - 0점 : 자신이 정한 입장과 반대편 논거를 담은 제시문의 내용에 의거하지 않고 비판하였다.

3) 표현력을 포함하여 글의 논리적 구성력 : 20점

20점 - 11점 : 표현력을 포함하여 글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었다.

10점 - 0점 : 표현력을 포함하여 글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